

kt노동조합의 한국노총 가입추진을 바라보며

kt노동조합은 지난 3.11일 한국노총 가입추진을 발표했다. 이날 노동조합은 3.20~22일에 개최될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한국노총 가입을 결정할 예정이고, 한국노총 가입을 통해 ▲ kt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확대 ▲ 좌파세력으로부터 kt노동조합 kt 사수 및 조합원 고용안정 강화 ▲ 방송통신미디어 규제에 맞서 대정부 교섭력확충 등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는 우선 전체 노동자의 단결과 사회적 연대활동을 위해 기업별 노동조합의 틀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상급단체 가입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다만 이번 상급단체 가입결정의 대상인 한국노총의 경우, 최초 결성부터 이승만정권이 자주적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관제 어용노동조합을 세우는 과정에서 출발한 역사적 한계를 안고 있고, 이후 내부개혁을 위한 모습을 일부 보여오기도 했으나 아직까지는 자본과 권력에 맞서 노동자의 이익을 일관되게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은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역시 내부적인 한계와 개혁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나, 민주노총이 한국사회 민주화 운동의 과정에서,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민주노조운동이라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탄생하였고 그 맥락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점과 대비되어 왔다. 그래서 우리는 2009년도에 이명박 정권의 민주노총 약화전략과 보조를 맞춰서 진행되었던 kt노동조합의 민주노총 탈퇴에 대해 반대하였던 것이고, 그 결정의 연장선 격인 이번 한국노총으로의 상급단체 결정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하는 바이다.

한편 당시의 민주노총 탈퇴는 청와대-노동부-kt노사 모두 연결되는 소위 '영포라인'이 정권의 의도에 맞춰 움직였던 기획작품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kt노동조합의 한국노총 가입결정도 박근혜정권이 한국노총만을 노사정협상의 파트너로 지목하면서 민주노총 배제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상황에서 돌출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지난번 민주노총 탈퇴건과 마찬가지로 정권과 사측에의 코드맞추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 어려울 듯 하다.

kt 노동조합의 이번
한국노총 가입결정은
정권과 사측에의
코드맞추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
어려울 듯 하다.

물론 kt 노동조합의 숨은 의도가 어떤지 간에 자신들이 내건 명분대로 한국노총 가입을 통해 ‘교섭력 강화’를 통한 조합원의 고용안정, 근로조건 개선 등을 이끌어낸다면 그 진정성을 인정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kt 노동조합의 지난 행태들은 이런 기대를 품기 어렵게 한다. 지난 2009년도에도 kt 노동조합은 민주노총을 탈퇴하면서 이 결정을 통해 ‘소모적인 정파싸움에서 벗어나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협신분투’ 하겠다면서 ‘노동운동의 새로운 노선과 비전’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kt 노동조합이 보여온 모습은 오로지 회사측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해 ‘현신분투’ 하는 것이었을 뿐이다. 민주노총 탈퇴가 결정된 2009년에 노사합의로 도입된 고과연봉제 하에서 kt 노동자들은 상대고과에 의해 임금인상률이 결정되고 심지어 하위고과의 경우 연봉삭감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리고 그 해 연말에는 ‘명예퇴직’이라는 허울아래 사실상의 정리해고가 진행되면서 단일기업으로는 사상최대의 인원인 6천 여명의 인원이 구조조정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11대 노조위원장이었던 김구현은 노조위원장을 물러나자마자 kt 수련관을 담당하는 ‘코웰스’라는 회사의 회장자리를 뛰어 차고 있다. 따라서 이런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kt 노동조합이 내걸은 허울좋은 명분들이 공문구처럼 느껴질 뿐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kt 노동조합이 한국노총에 가입하는 명분의 하나로 ‘좌파세력으로부터 kt 노동조합과 kt 사수’를 내세운 것에 대해서 놀라움과 함께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보수세력이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왔던 ‘색깔론’을 이제는 노동조합까지 나서서 이용하려는 것인가? 이는 어용노조를 혁파하고 민주노조를 최초로 세워낸 후, 김영삼정권에 의해 ‘체제전복세력’으로 까지 몰리기까지 했지만 물러섬없이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지켜내고자했던 케이티 노동조합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내팽겨치는 언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역사에 반해 최근 십수여년간의 kt 노동조합의 행태는 굳이 좌파, 우파를 따지기에 앞서,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회사편에 빌붙어 노동자의 권익을 팔아먹어온 ‘사용자파’ 노조는 아니었던가 스스로 반성부터 할 일이다.

우리는 노동자의 자주적 운동을 모두 소위 ‘좌파’ 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그래서 용납될 수 없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보수세력의 협된 주장에 부회뇌동하는 kt 노동조합의 태도는 노동운동의 근본을 저버리는 것으로 단호한 비판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또한 진정한 노동운동은 사용자에 맞서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내는 ‘노동자파’에 입각한 운동이어야 하고, 이는 좌파 정치세력을 비롯한 전체 진보진영과의 연대와 배치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원칙조차 망각하고 있는 현 kt 노동조합은 노동운동을 운운할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한 셈이라 봐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원칙적으로 볼 때 전체 노동자의 단결과 사회적 연대를 위한 것이라면 기업별 노동조합의 틀을 넘어서는 상급단체 가입과 연대활동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대로 kt 노동조합의 이번 한국노총 가입결정이 그러한 취지와 목적에 입각한 결정이었는지는 많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kt 노동조합은 상급단체 가입에 앞서 노동조합 본연의 자주성과 민주성부터 복원하는 것이 우선이다. kt 전국민주동지회는 kt 노동조합내 민주파 활동가들의 조직으로서 앞으로도 끊임없는 내부비판과 대중활동을 통해 반드시 kt 노동조합을 민주노조로 다시 세워낼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kt 노동조합을 진정한 노동자 단결과 사회연대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석채 회장은 떼먹은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

올해 1월에 발간된 신년호 민주통신에서는 2012년12월24일에 정체불명으로 직원들에게 입금된 돈에 대해 회사측이 투명하게 상세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 올 2월26일과 3월11일에도 정체불명의 돈이 직원들의 별도계좌로 계속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내역에 대해서도 회사는 아무 해명이 없다.

왜 지급한 급여내역을 회사는 설명하지 못하는 걸까? 거기에는 바로 회사측이 떳떳하지 못한 꼼수가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특별근로감독 당시 조사를 받아 적발된 지사의 2011년도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만 KT는 2012년12월24일자로 해당 직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올해 초에 지급된 것은 당시 조사를 받지 않은 지사들의 미지급 임금이라는 것이 노동부에서 확인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그런데, 회사측은 2011년도치만 지급했을 뿐 나머지 2년치는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회사는 떼먹은 돈의 일부만 지급하고 통치고 넘어가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 쉬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러나 어림없는 소리다! 이 세상에 가장 악질적인 범죄자중의 하나가 직원들 출근시켜 일 부려 먹고 임금 떼먹는 놈이다. 더구나 연간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가 그러했다면 그 회사 대표는 마땅히 천벌을 받아야 한다. 이석채 회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감옥을 갈 것인지 떼먹은 돈을 모두 지급할 것인지 분명히 선택하라!

노민주

무급휴일근무 철폐를 이끌어낸 저항의 힘

2011년도 3월 28일 kt직원들은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된다. 전남 여수지사에 근무하는 김00 조합원이 자택근처 야산에서 목을 매어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김조합원은 당시 몇달 내내 무급휴일근무에 시달리며 자살한 전날 일요일에도 영업활동을 위해 출근을 했다고 한다. 그가 남긴 메모에는 ‘너무 힘들어 쉬고 싶다’는 글이 적혀있었다고 한다. 자살만이 아니었다. 과로로 인한 돌연사와 병사등이 급증하면서 2011년도에 16명, 2012년도에 23명 등 죽음의 행열이 이어졌다. 급기야는 시민, 사회단체들이 ‘죽음의 기업’ kt의 노동현실을 개선해야한다는 이슈를 제기하기까지 이르렀다.

kt민주동지회 또한 이러한 현실을 바꿔내기 위한 싸움에 뛰어들었다. 무급휴일근무와 노동인권탄압을

폭로하는 기자회견, 공청회, 촛불집회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kt의 현실을 알려내고자 하였다. 드디어 이런 내부의 저항과 시민사회의 호응이 함께 한 결과로 2012년도에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이뤄진 것이다.

그럼에도 kt노동조합의 행태는 가관이었다. 자신의 책임방기를 반성하기는커녕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 어깃장을 놓기도 했다. 결국 특별근로감독 결과 kt의 온갖 부당노동행위가 드러났고 회사는 은근슬쩍 떼먹었던 근무수당을 직원들의 계좌로 입금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얼마전 회사는 휴일근무를 신청한 직원이 아니면, 사내전산망에 접속을 못하게 하는 조치를 실행했다.

자, 바로 이것이 모순된 현실에 굴하지 않고 투쟁에 나섰던 결과이다. kt민주동지회는 이러한 투쟁에 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앞으로도 회사와 어용노동조합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당당한 자주장을 펼칠것이다.

날치기로 일관한 kt 주주총회을 보면서 – 민주동지회 공개질의서

2013년도 kt정기주주총회가 3월15일에 우면동 kt 연구개발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석채 회장이 2009년1월에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으로 kt에 입성한 지 여덟 번째로 치뤄지는 주총이었다. 그 동안의 주총이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역시 안건에 대한 균형된 찬반토론은 하나도 없었다. 오로지 사전각본대로 동원된 찬성발언자에게만 발언권을 주어졌고, 결국 모든 안건을 일사천리로 날치기 통과시킬 따름이었다.

더구나 정당하게 발언권을 요구하는 주주들을 향해 ‘끌어내라’고 경비업체 직원에게 지시하는 이석채 회장의 모습은 안하무인의 폭군과도 같은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한편으로 얼마나 그가 자신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다.

지난 해 11월 23일에 개최되었던 임시주총(안건: 위성사업부문 분할) 당시 이석채 회장은 주주들이 발언권을 요구하자 “충분한 토론은 내년 정기주주총회 때 하겠습니다”라는 말로 상황을 모면하며 역시 날치기로 안건들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리고서 이제와서는 그 때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다버리고 속전속결로 밀어부치는 모습을 보면, 이날 주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파행으로 치달은 주총을 보며 우리는 이번 주총이 이석채 회장이 의장이 되어 진행한 마지막 주총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우리는 아래와 같은 공개질의를 통해 이석채 회장에게 묻고자 한다.

첫째, 이날 주총의 발언들을 제지하기 위해 동원된 경비업체 용역들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100 여명이라고 하는데 경비업체에 지출된 비용은 총 얼마인가?

둘째, 제1호 의안인 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2012년도에 매각한 부동산은 구체적으로 몇 건이

고 그 총액은 얼마인가?

또한 지하 동케이블 매각 대금은 총 얼마이며 사용처는 무엇인가?

셋째, 제1호 의안인 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2012년도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적발된 무급휴일근로 등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작년 말과 올해 초에 뒤늦게 지급하면서 해당 직원들에게는 상세내역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총 지급된 내역은 몇 건이며 그 총액은 얼마인가?

또한 이로 인해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떼먹은 기업으로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는데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킬 방안은 무엇인가?

넷째, 제2호 의안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과 관련하여

이석채 회장이 취임할 때도 경쟁사인 SKC&c 사외이사였기에 대표이사 자격이 없음에도 해당 정관 조항(25조)을 삭제하면서 취임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사외이사까지 경쟁사 제한 규정을 삭제한다면 무엇으로 KT를 보호 할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인가?

또한 사외이사의 총 재임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였는데 혹시 이석채 회장도 10년간 KT회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섯째, 제3호 의안인 이사 선임의 건과 관련하여

현재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사람은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김웅한 사외이사인데 여기에 추가로 사내이사로 영국 국적의 김일영 코퍼레이트 센터장을 선임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kt 경영진이 해외 초국적 투기자본으로의 초과이윤을 보장하는 고배당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일 것이다.

과연 이석채 회장의 통신주권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여섯째, 제4호 의안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관련하여 차상균 사외이사(서울대 전기공학부 교

수)는 SAP한국연구소의 사외이사로도 재직하고 있는데, SAP한국연구소는 지난해 11월부터 KT와 제휴관계를 맺고 있어서 감사로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데 제약이 있을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으면서 감사위원으로 선임된 김웅한 사외이사와 마찬가지로 겉모양은 감사위원이지만 속 내용은 한통속이며, 결국은 철저한 담합구조에 다름아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일곱째, 제 5호 의안인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이석채 회장이 처음 취임하던 2009년 1월 14일 KT주가는 39,550원이었으나 4년이 지난 어제

(2013년 3월 14일) 종가는 37,050원으로 약 2,500원이나 떨어졌고 이것이 바로 CEO 이석채의 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이사의 보수한도 65억 원 또한 취임 할 때의 이사의 보수한도인 45억 원 이하로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아래야 실질임금 상 지속적으로 연봉이 삭감되어온 직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는 것 아닌가?

이상의 공개질의에 대해 이석채 회장은 신속하게 답변해주기 바란다.

2013년 3월 15일 KT전국민주동지회

주총 스케치

3.15일 열렸던 kt주총에 대해서 인터넷언론 ‘미디어스’는 아래와 같은 기사제목으로 소개하였다. [KT 주총,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다” / 인력 동원→기획된 발언→원 안통과…주주들 “시장통보다 못해”] 이날 주주총회장 밖에서는 이석채 회장의 배임 혐의 처벌을 탄원하는 서명이 진행됐으며 안에서는 소액주주들의 항의와 고성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런 소란에 아랑곳없이 동원한 직원들에게만 발언권이 주어졌고, 발언자들은 이석채 회장과 임직원 찬양 발언만을 늘어놓으며 원안가결을 요구했다. 이에 이석채 회장은 ‘감사’를 연발하며 속전속결식의 의사진행을 이어가 결국 1시간여만에 모든 원안이 날치기식으로 처리되는 모습이었다.

이 날 발언권을 얻어 낯뜨거운 이석채 회장에 대한 찬양성 발언을 했던 발언자 중 한 명은 언론에 kt현직 지사장임이 보도되기도 했다.

한편 다음날 ‘다음 아고라’에 주주총회에 동원되었



던 kt직원의 아내라면서 한탄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아래는 그 글 전문이다.

『내일 15일 KT 주주총회가 있답니다.

회장 이석채를 참여연대가 배임혐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주주총회에 와서 발언을 저지할 목적으로 순서와 자리배치까지 리허설을 몇 차례나 시키고 내일 아침부터 연가 쓰고 주주총회에 나오라 했답니다.

이사들 연봉을 65억 동결시킨다고 찬성에 손들라고.. 직원들 월급은 깎고..

이런 글 열받아 남편대신 글 올리는데도 자기회사 공안분위기라며 벌벌떠는 모습 보니 부아가 더 치밀어 오르네요...

회사에 직접 따지고 싶지만 힘없으니 이곳에서나마 넋두리 해봅니다 ㅜㅜ』

‘전환배치’는 그 자체로 구조조정이다!

● 사실로 드러난 민주통신의 경고

지난 2.19일자로 단행되었던 조직개편이 일차적으로 마무리되어가는 모습이다. 이번 구조조정은 커스터머 부문의 ‘현장’으로, 특히 지사의 ‘영업’ 부문으로 많은 인원을 전환배치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특징이었다. 민영화 이후 수없이 진행되어 왔던 ‘조직개편’의 방향을 돌이켜보면 기간망(네트워크)과 관련된 핵심업무는 광역화, 슬림화하면서 고객접점업무인 영업과 개통, A/S 직무만을 지사 현장에 떨궈놓는 방향이었다. 이번 특별기동팀 해체로 이 과정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커스터머 부문, 특히 현장지사에 대한 가공할만한 실적압박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것이 다른 부문간의 수익성 경쟁을 통한 구조조정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하에 단단히 각오하고 대비해야 할 지점이라 할 수 있다.

● 사실무근???

이런 민주통신의 지적에 대해 현 노동조합은 ‘구조조정 사전포석설’ 등은 루머일 뿐이고,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일체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반응을 표명하였다. 일일소식지 등을 통해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오히려 이번 조직개편이 현장중심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회사가 받아들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기도 하다. 회사의 장기적인 포석이 구조조정에 있다는 것을 예전의 경험을 통해 조합원들 스스로가 문제제기하고 있음에도, 조합원의 생사가 달린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이런식의 나몰라라식의 태도는 노동조합의 자기본분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 전환배치도 구조조정이다.

한편 노동조합의 인식에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다. 노동조합은 마치 ‘전환배치’ 그 자체는 구조

조정과 무관한 것처럼 보고 있다. 그러나 아니다. 전환배치는 그 자체로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인원감축만이 구조조정이 아니라 노동자의 임금, 복지,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모든 것이 바로 구조조정인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일차적으로 수천여명의 직원들이 ‘영업’ 현장으로 전환배치되었다. 구 CM 직무 인력의 30%가 ITE, 영업직무로 전환배치되었고, 시험실업무도 일단 영업팀에 배속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직무전환 자체가 직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되어 강요된 것이었고 많은 고통을 낳고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몇 년간 한해에도 수십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kt가 ‘죽음의 기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 배경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자들의 가중된 고통이 있었는데, 전환배치 또한 그 과정에서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 은평지사에서 투진자살한 강00씨의 경우도 전송업무에서 개통 A/S 직무로 전환배치된 후 실적부진 등에 따른 정신적 압박을 못견디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였다. 전환배치된 인원중 자살사례 뿐만 아니라 돌연사, 질병사가 속출한 것도 전환배치가 노동자들에게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얼마나 가져다주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 더 이상의 구조조정, 전환배치는 안된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조정의 과정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해외투기자본 등 자본의 수익성만을 최우선의 가치로 둔 경영이 민영화 이후 가속화되어왔고, 이는 결국 외부적으로는 통신공공성의 상실, 내부적으로는 kt 노동자들에 대한 가차없는 구조조정으로 이어져왔다. 이러한 고리를 끊어내고 통신공공성과 노동인권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 회사측의 충실한 대변자로 전락한 현 노동조합을 민주노조로 바꿔내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는 시급한 과제이다.

아름다운 정년을 사수하기 위한 CP철폐투쟁의 우여곡절

kt에서 비밀퇴출프로그램(일명CP)이 본사차원에서 수립 시행되었음은 2013.1.8.자 청주지법(항소심) 판결과 2013.1.29.자 수원지법(항소심) 판결을 통해 사실로 밝혀져 이제 세상이 다 아는 바다. 그런데 회사측은 청주지법 판결에 대해 2013.1.15.자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하였으며, 수원지법 판결에 대해서는 2013.2.18자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하였다.

주목할만한 점은 회사측을 대리할 법무법인의 전격적인 교체이다. 기존 항소심에서 회사측 대리인으로 나섰던 법무법인은 이석채회장이 고문으로 재직한 바 있고 우리나라 법무법인 서열 2위인 태평양이었다. 그런데 수원지법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에 대해 태평양은 갑자기 대법원에 소송대리인 사임계를 제출하였으며,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법무법인은 우리나라 법무법인 서열 1위인 김앤장이라는 곳이다.

■ 김앤장

김앤장은 투기자본과 악덕재벌 기업의 대리인을 주로 맡아 시민단체로부터 사법불신의 원흉으로 규탄받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사무소이다. 이들의 악행을 다룬 별도의 책이 한 권 나왔을 정도이다. 한편 이 소송에 참여한 김앤장의 변호사의 면면 또한 화려하다. 대법관 출신인 손지열변호사(2000~2006대법관)를 필두로 하여 김앤장 소속 변호사 4명(손지열 이제호 최건호 정성욱)이 대리인으로 나선 것이다.

이것은 KT가 소위 CP사건에 대해 얼마나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사회적 범죄행위로 규정한 법원판결을 뒤집기 위해 얼마나 애간힘을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 이 사건은 청주지법 항소심에서 CP에 의한 부당한 파면에 대해 위자료 1,000만원이 선고된 사건이다. 원고가 상고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측이 상고

하지 않아 확정된다면 회사는 금전적으로는 소송비용 까지 합쳐보아야 1100여만원 정도 지급하고 나면 끝나는 매우 경미한 사건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회사측이 이례적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는 바로 KT가 한 행위-즉 회사가 근로자들 중 CP퇴출대상자를 미리 정해놓고 범죄적 탈법행위를 지시하는 내용의 부진인력관리프로그램을 만들어 그 프로그램에 의하여 근로자들을 강제퇴출 해온 행위-가 사회적으로 너무도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적

탈법행위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회사가 지시한 행위임이 법원판결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인될 경우 입을 타격이 너무도 클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범죄적 탈법행위를 저지른 KT가 어떻게 해서든지 진실을 은폐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헛된 꿈

그러나 KT는 꿈을 깨야 한다.

피눈물을 흘리며 정년 한참 이전에 CP프로그램에 따라 퇴출된 직원들과 피해자들이 광범위하게 증언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실행한 관리자들의 양심선언이 있고, 이것을 입증하는 비밀문건과 자료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왔기에 이러한 사실을 없던 것으로 하기에는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격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법원도 두차례의 판결을 통해 이를 사실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

혹시 대법관이라는 전관예우를 통해 인간학대프로그램의 진실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 큰 범죄를 또다시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죄를 뉘우치지 않고 이를 또 다른 범죄행위로 돌려 막고자 한다면 결국 가중처벌을 면치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석채회장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kt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조대현 작가가 첫시집 '도시인'을 출판하였다. 조대현 작가는 kt에 근무하던 당시 민주노조운동에 투신하여 5대, 6대 kt 노조 목포지부 조직부장을 맡은 바 있다. 2001년도 114 분사저지투쟁시 비대위 중앙본부 교육선전실장으로 활동하여 정직3개월의 징계를 당하기도 했다. 또한 이후 민주노조가 완전히 무력화되면서 거문도지점으로 발령을 받아 5년여간의 유배와도 같은 시절을 겪어야 했다. 노동운동에 헌신하면서도 문학의 꿈을 놓지 않았던 그가 작품활동을 시작한지 20여년 만에 시집 '도시인'을 출판하였다. 현재는 퇴사하여 새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는 노동자, 민중의 삶과 희망을 노래하는 시인으로, kt 노동자들의 영원한 동지로 함께하고 있다. 이번 민주통신에서는 그의 시집 '도시인' 중에서 시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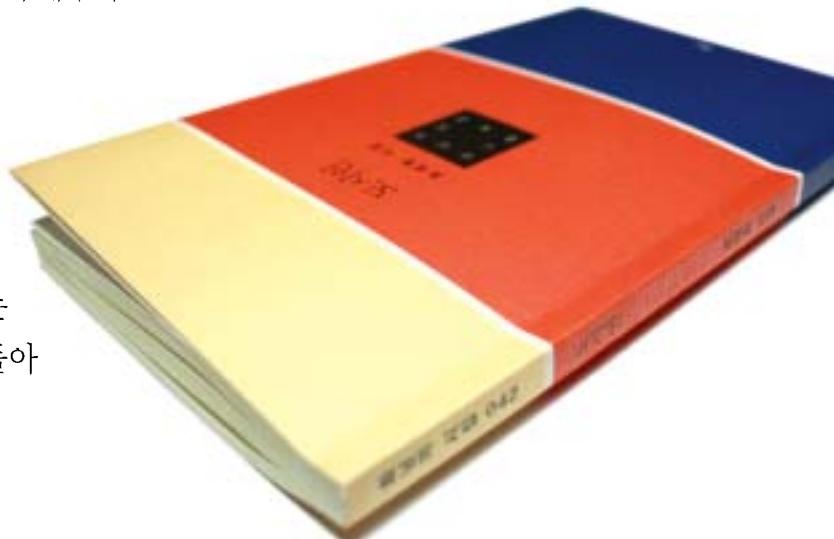
희 망

우리는 쓰러진 나락을 일으켜 세우지만
바람은 하늘에서부터
구름을 불리운다
빈 가슴은 마냥 뒤척이고

빗줄기는
바람과 함께 달려온 저 비는
살구나무 기운수로 위를 돌아
땅의 목마름을 채우고

살아간다는 의미는
두엄 향기 같은 거라고
고향 산천못 잊어 돌아온 지금
바다를 닮은 사금파리 같은 꿈
가슴에 담아 뒤돌아 설 때

푸른 향기는 이 땅에 남아
기다리는 기쁨을 남겨둔다.



저자소개 | 조대현

저자 조대현은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 목포 덕인고를 거쳐 방송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동인지 『청호문학』에 「툇개」「지리산」「우이도」, 연작시 등을 발표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했고, 2001년부터 목포작가회의 기관지 『문학과세상』과 진보생활문예지 『삶이 보이는 창』에 「서울역」「어느 가을」「아버지 1」「그 여자」「쪽국」 등을 발표하며 등단했다. 2012년 12월, 한국문학평화포럼의 기관지 『한국평화문학』(통권 제7호)에 「아버지 2」「나무」「도시인」 등을 발표했다. 현재 (주)하늘정원 대표이사, 목포작가회의 및 리얼리스트100, 한국문학평화포럼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